

통일국가시대 초등 국어과 제재로서 일제강점기 전래동화 연구

진선희*

국문초록

이 논문은 통일국가시대 국어과 교재로 활용 가능한 아동문학 제재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일제강점기에 정착 발간된 전래동화집 속의 이야기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네 권의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228편의 각편을 탐색하여 대표적 14가지 유형에 대하여 내용 및 문체적 특성과 통일국가시대 아동문학 제재로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형제 이야기, 흑과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계모와 의붓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지혜 다툼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바보이야기, 재판 이야기, 우정 이야기, 토끼전 이야기, 교만한 부자의 몰락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유형별로 하위 각편을 살펴 그 특징과 통일국가시대 제재로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주제어 : 통일국가시대, 아동문학, 전래동화, 교과서, 제재

목차

- | | |
|--------------------------|-----------------------------|
| 1. 서론 | 3. 일제강점기 발간 전래동화의 내용 유형별 검토 |
| 2.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의 교육적 활용 가치 | 4. 결론 |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shjin@dnuc.ac.kr

1. 서론

오랜 분단의 간극으로 인하여 통일국가시대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남과 북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문화적 자세를 갖는 일이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어느 한쪽의 관점이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서로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남북의 차이는 수천 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다. 오랜 언어·문화적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은 통일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분단의 간극으로 커진 차이는 결국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두드러진다. 그러하기에 통일국가시대의 언어·문화적 해결 과제들은 문화 및 언어교과인 국어과 교육에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짊어져야 할 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동문학 제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의 문화적 힘을 키운다는 점에서 초등 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교육 자료이다. 남과 북의 상호이해 및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북 분단 시기의 아동문학이나 그 이전의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동문학을 통한 상호이해와 미래지향적 통합을 위한 활용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근대적 아동문학의 발아와 형성의 시기이면서,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였던 분단 이전의 마지막 시기이다. 통일국가시대의 아동문학 제재에 대한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분단 시기 동안의 이데올로기 및 문화적 차이를 배제한 가장 최근에 공유했던 아동문학 제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과거의 문학적 소산이기에 지금 여기의 삶의 문

제를 그대로 담아내어야 하는 구체성 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이 갖는 상징성 및 ‘지금 여기’에로의 재해석의 특성을 살린다면 인류 보편성과 민족 보편성 면에서 깊이 있게 탐색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크다.

아동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전래동화는 남북의 차이 및 동질성의 교육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이다. 전래동화는 구전된 이야기로 창작의 주체가 불특정하며 집단 무의식이 반영되어 오랜 시간 전해져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왔다. 이는 남북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문화유산이면서 민족의 원형적 가치를 담고 있기에 통일국가시대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더욱 높다.

분단 시대의 남과 북에서 각각 전래동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구전동화의 특성상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이 조금씩 변이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문학을 정치 체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기에 아동문학도 그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의 아동문학 창작 원리는 주체문학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¹ 전래동화도 그러한 관점에서 각색되고 변이 되어 왔을 것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일견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에서 전래동화가 회자되는 환경은 교과서 등 공적 환경 보다는 부모나 친지 등 사적관계² 및 일상생활 환경 속이라는 점이

1 주체문학론의 아동문학 창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아동의 시점에서 형상화 할 것 ②아동의 특성에 맞게 형상화 할 것 ③아동의 높은 정신상태에 맞게 창조할 것 ④수령과 당에 충성화 효성하는 모습을 그릴 것 ⑤조직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반영할 것 ⑥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임을 보일 것 ⑦우리식 문학으로 발전시킬 것 ⑧재미있을 것 ⑨행동성과 운동감을 그릴 것 ⑩쉬운 말과 표현을 쓸 것 ⑪순결한 마음을 그릴 것 ⑫수령의 혁명역사를 그릴 것 ⑬내용과 형식을 다양화 할 것 ⑭문학창작의 일반적 요구를 구현할 것 ⑮진실성과 독창성을 그릴 것. 서동수(2005),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집, 동화와번역연구소, 87-114면.에서 재인용.

2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 9시부터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전설화도 화제에 오른다고 한다. 김기창·이복규(2005), 『분단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 민속원, 19면.

다. 북한의 교과서 등에서는 전래동화의 주체문화적 변이가 강력하겠으나 사적 관계를 통해 회자되는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제 통일국가시대에 활용할 국어과 교재의 제재로서 전래동화는 분단 이전인 일제강점기의 전래동화 형태를 바탕으로 남북의 변이 및 활용 양태를 새롭게 탐색하여 남과 북의 차이와 동질성 확인 및 미래지향적 문학교육의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남과 북의 이념적 차이가 반영된 변이를 거치기 이전의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동일성을 회복하고 통일국가시대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정착 발간된 전래동화의 형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통일국가시대의 국어과 제재로서 전래동화의 활용 방법이나 가능성을 탐색할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아동문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 및 논의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재철(2007)은 남북 아동문학의 전개와 장르 등 이론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 원종찬(2012)은 일제강점기에서 북한 아동문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사적으로 정리하며 남북 아동문학이 갈라진 분단시대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통합적 관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의 거시적 연구와 달리 최근 통일국가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성은(2019), 전영선(2014) 등은 북한의 동시·동요나 애니메이션 작품을 다루며 북한 아동문학 작품을 논의하였고, 김태호(2017)는 통일국가시대의 국어교과서 제재에 대한 탐색으로서 북한의 아동문학을 고찰하였다. 박금숙(2016)은 남북한 초등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연구 자료의 한계로 과거의 북한 교과서와 현재의 남한 교과서를 비교하는 데에 그쳤다. 또 김정희(2018)는 북

한 옛이야기 가운데 남한에서 출판된 몇 편을 탐색하며 교류의 현황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전래동화집을 분석하고 교육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통일국가시대 국어과 교재에서 활용 가능한 아동문학 제재로서 전래동화의 가능성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 현재 남과 북에서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전래동화의 분단 이전 형태를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래동화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일제강점기 채록 전래동화의 교육적 활용 가치

인간의 삶과 정서를 다루는 문학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나아갈 지혜를 기르고 소통하는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아동문학은 남한과 북한의 정서 및 감수성과 삶의 모습과 이상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어느 사회든 미래를 떠맡을 아동에게 읽히는 문학은 그 사회의 과거나 현재적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적 소망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 국어과 교재로 활용하는 문학 제재는 그 사회의 철학과 이상에 부합하며 새로운 미래사회의 일원에게 제시하는 가장 의도적으로 설계되는 교육 자료이자 내용이다.

분단시대에도 남한의 교과서와 그림책 등 인쇄물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전래동화가 활용되어왔다. 북한의 아동들에게도 전래동화는 다양한 형태로 향유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20권, 537페이지)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이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는 많은 이야기들을 창조하여 들려주었다. 구전동화와 구전우화는 각기 독자적인 설화 형태들로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³

하지만 북한의 교과서나 출판물 및 애니메이션에서 활용하는 전래동화는 북한의 정치사상을 기반으로 변개되거나 재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발표된 것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구비문학의 인민성을 강조하면서 민중의 교양 교육 제재로서 가치를 강조하였다.⁴ 그리하여 북한에서 발행된 인쇄물 속의 전래동화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일지라도 그 구연자가 주로 북한의 정치지도자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김정숙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등으로 구연자를 이야기 속에 넣어 알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는 북한이 주체문학론을 위하여 전래동화를 변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전래동화가 일제강점기 이후 남북 분단시대에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 속에서 변이되었음을⁵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다.

남북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래동화의 변이된 각편들은 통일국가

3 장권표(1990), 『조선 구전문학 개요』(고대중세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27-128면.

4 고정옥(1962), 『조선 구전 문학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7면. 김화경(1998)에서 재인용.

5 박금숙(2016)은 남한과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를 살펴서 구체적 내용을 떠나서 남과 북에 같은 제목의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 한 편 뿐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의 비교해 본다면 각편의 내용이 같은 유형이 있겠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을 것이다. 북한의 표기나 어휘 뿐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이나 결말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이념적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대 국어과 제재로 활용될 때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변이되어 태어나거나, 서로 다른 각편으로 나아오게 된 정황을 서로 이해하며 향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전래동화가 민족의 동질적 문화유산이면서 온 민족이 함께 만들어나가며 정착시키고 전하는 형태를 띠는 점에서 매우 유연하고 다행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때 일제강점기에 채록되고 정착되었던 전래동화의 각편들은 남북의 공동 전래동화로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통일국가시대의 아동문학 제재 가운데 전래동화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전래동화는 기원을 알기 어려운 구비문학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옛이야기 가운데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말한다. 어느 나라 혹은 민족이든 그들만의 원초적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독일의 ‘메르헨’, 영국의 ‘페어리테일(Fairy tale)’, 북유럽의 ‘에반튀레(eventyre)’ 등이 그 사례이다. 전래동화는 동질성을 공유한 민족 혹은 국가의 사람들이 갖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의식의 원형을 함유하고 있어 ‘무의식적 진실의 상징적 표현’(브루노베텔하임, 1998: 13-25)으로 아동의 무의식에 작동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통일국가시대의 전래동화가 갖는 국어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정리해본다.

첫째는 전래동화는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로 하여금 분단의 단절보다 훨씬 긴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근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전래동화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이다. 분단 상황에서도 각자의 삶에 맞게 적절한 전래동화가 이어져 왔음도 분명하다. 이제 통일국가시대에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전래동화를 함께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뿌리가 같음을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야기의 내용과 주인공과 말의 음률

과 은유와 상징을 함께 이해하고 향유한다는 공통적 기반을 확인하는 데에 전래동화만큼 좋은 제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남과 북이 분단되기 훨씬 전부터 공유해오던 삶의 정서와 풍속 및 가치를 전래동화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향유하는 것은 미미한 단절을 넘어서 ‘지금 여기’를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둘째 전래동화는 남북한의 언어·문화적 기반을 확인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래동화는 구비전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의 집단적 가치와 집단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래동화는 구연되거나 읽힐 때 언어로 이루어지는 이야기판에서 내재되고 소통되는 가치관, 청중이나 독자의 반응과 더불어 새롭게 덧붙여지고 재구성되는 미래지향적이고 해체적 성격의 언어문화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국가시대에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이 공감과 상호이해 및 새로운 삶의 지향으로 나아가는 장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조상이 전하는 전통적 삶의 가치를 담은 언어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 ‘지금 여기’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미래로 나아갈 가치를 담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장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전래동화가 감당할 수 있다.

셋째, 전래동화는 그 내용상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지녀온 삶의 지혜와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어 통일국가시대라는 다양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지혜와 사상과 정서적 능력을 북돋우는 데에 적합하다. 전래동화에 담긴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교훈은 그것을 공유하는 아동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단절에 따른 충돌과 오해와 혼란을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매개체로서 전래동화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과 교훈과 지혜와 삶의 자세들이 문제를 감당하며 ‘지금 여기’에 맞는 교훈과 지혜

를 모색하는 집단적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래동화는 통일국가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겪게 될 여러 가지 혼란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심리적 힘을 기르는 데에 적합하다. 통일국가시대에는 최근 수십 년의 삶이나 가치와 매우 다른 다양한 삶의 가치에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발간 전래동화의 내용 유형별 검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우리나라 전래동화집 4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⁶ 우리나라 최초의 전래동화집은 1924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동화집』이다. 모두 25편의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고 일본어로 발간되었다. 권혁래(2003)가 한글로 번역한 저서가 있어서 그것을 연구 대상 자료로 정하였다. 최근에 남한에서 번역한 자료이기에 남한의 아동 수준에 맞는 어투를 따르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전래동화집으로 1926년 심의린이 발간한 『담화자료 조선동화대집』이 있다. 총 66편의 전래동화가 우리말로 발간되었다. 1926년 당시 우리말의 어투나 어휘 및 문체가 잘 드러나는 소중한 자료이다.

세 번째는 일본인에게 조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일본인 나카무라 료헤이가 대구에서 1926년에 쓴 『조선동화집』이다. 이 책도 일본어로 되

6 연구자가 입수한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래동화집은 다음과 같다. 『조선동화집』(1924-조선총독부 편, 『조선동화대집』(심의린, 1926년, 한성도서주식회사), 『조선동화집』(나카무라 료헤이, 1926년, 후잔보),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1940년, 학예사), 『신설연이야기집연령』(다치가와 쇼조, 1926년), 『마쓰무라 다케오의 조선·대만·아이누 동화집』(1929년, 세계동화대계간행회) .

어 출판되었기에 김영주·이시준(2016)이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 번째 자료는 1940년 박영만이 주로 북한 지역에서 채록한 75편의 전래동화를 엮어낸 『조선전래동화집』이다. 주로 북한 지역에서 채록한 이야기로 통일국가시대에 북한과 남한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정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표 1] 일제강점기 발간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각편 목록

순	A.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년)	B.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년)	C.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년)	D.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년)
1	물속의 구슬	은혜 모르는 호랑이	호랑이와 꽃감	열두 삼천
2	원숭이의 재판	멸치의 꿈	물속의 구슬	이야기는 이야기할 것이지 넣어둘 것은 아니오
3	혹 떼이기, 혹 받기	파란 보자기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소 되었던 사람
4	술이 싫은 토끼와 거 북이와 두꺼비	도깨비 돈	만수 이야기	범과 효자
5	한 겨울의 딸기	호랑이를 잡은 도적	거북이 사자	봉익이 김선달
6	검은 옥과 붉은 옥	당나귀 알	원숭이의 재판	노인과 양자, 사슴, 뱀
7	교활한 토끼	바보 사위	점을 잘 치는 돌	계수나무 할아버지
8	말을 하는 거북이	개구리 신선	젊은이와 날개옷	금이 귀신된 이야기
9	선녀의 날개옷	금방망이 은방망이	교활한 토끼	옛 잘 먹는 훈장
10	바보 점쟁이	이오성	혹부리 영감	잇기 잘하는 사람 이 야기
11	심부름꾼 거북이	효자의 도움	점쟁이 호랑이	박혁거세 임금님
12	은혜 값은 두꺼비	네모진 보석	아저씨와 겨울	목침 이야기
13	이야기 좋아하는 장님	외쪽의 피	세 개의 병	좁쌀 한 알로 정승의 딸을 얻은 사람 이야기
14	종을 친 까치	착한 아우	거북이의 말	독수리가 된 왕

순	A.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년)	B. 『담화자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년)	C. 『조선동화집』 (니키무라 료헤이, 1926년)	D.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년)
15	세 개의 구슬	부자되는 법	여우와 개구리의 지 혜 대결	까투리 이야기
16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곰과 산돼지	세 개의 보물	맷돌 조롱박 장구
17	어머니를 버린 남자	오작교	호랑이와 젊은이	불평가 이야기
18	개구리와 여우의 지 혜 겨루기	별주부	두 남매와 호랑이	흑 뱀 이야기
19	금방망이 은방망이	두견 쓴 고양이	두 형제와 도깨비집	청개구리 이야기
20	불쌍한 아이	유복자의 효성	곰에게 잡혀간 나무꾼	놀부와 흥부
21	검쟁이 호랑이	장승 해몽	토끼와 거북이와 두 꺼비	선녀의 옷과 수탉
22	세 개의 보물	소년 군수	복숭아 열매	헌데장이 코흘리개 눈척척이
23	큰 게를 물리친 돼지 와 곰	악독한 범	까치가 놓은 다리	교만한 왕 이야기
24	천벌 받은 호랑이	다람쥐의 보은	호랑이와 거북이	밥 안먹는 아내를 구 한 구두쇠
25	놀부와 흥부	원숭이 재판	종치는 까치	피 많은 김서방
26	-	바보 모집	장님과 요마	점 잘 치는 훈장
27	-	돌 두꺼비	잉어 앞에서 나온 구슬	구대 독자
28	-	오성의 도깨비 제어	어느 농사꾼과 그 부인	요술장이의 아내
29	-	반쪽 사람	거짓말 대결	삼백 냥 재판
30	-	놀부와 흥부	검은 구슬과 노란 구슬	코 긴 공주
31	-	노부를 내다버린 자	과거에 급제한 노인	황정승의 아가씨
32	-	토목공이와 자린고비	한겨울의 딸기	박 두꺼비
33	-	호랑이 모집	풍수선생의 세 아들	효자 이야기
34	-	사냥꾼의 소원	세 개의 구슬	소고기 재판
35	-	똑같은 재주	가난한 남자의 행운	장수되는 물
36	-	태전꾼의 피	은혜 값은 두꺼비	호박에 돈을 꽂아가 지고 오던 소년
37	-	김득선의 후회	쌍둥이를 열 번	학과 부기

순	A.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년)	B.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년)	C.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년)	D.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년)
38	-	콩쥐 팥쥐	부모 버린 남자	삼년 석 달 계속하는 긴 이야기
39	-	웅기장사	장님 아저씨	갈대잎
40	-	완고 양반	대개 퇴치	배가 아프면 개를 그 려 먹어라
41	-	달떡	실수투성이 신랑	오형제
42	-	두 개의 구슬	낮선 짝은이	산과 바다가 된 이야기
43	-	혹 달린 노웅	신기한 절구	코 길어진 욕심쟁이
44	-	문자 잘 쓰는 남자	심청전	꽃감 이야기
45	-	오리 먹고 알 먹어	제비 다리	복두철성
46	-	토끼의 지혜	조선의 시조 단군이 이야기	효자와 산삼
47	-	말하는 남생이	기자 이야기	쿨떡이 이야기
48	-	삼 인의 학동	고구려의 시조 주몽 이야기	지혜 다투기
49	-	염소의 환갑 연회	백제의 시조 비류와 온조의 이야기	장원 급제한 소년
50	-	두 형의 회개	제주도의 삼성혈	장화와 홍련
51	-	피 있는 여우	영일만의 연오와 세오	토끼와 사슴과 두꺼비
52	-	떡보의 실언	신라의 박혁거세 이 야기	난장이의 범 사냥
53	-	푸른 구슬과 빨간 구 슬	신라의 석탈해왕 이 야기	길고도 고소한 이야기
54	-	자리 다툼	계림의 기원	개와 고양이
55	-	천도 얻은 효자	망부암과 만파정	고생이란 것을 안 사람
56	-	개와 범	덕만의 지혜	도둑놈의 이름은 신 재복
57	-	떡보의 성공	김대성의 이야기	요술 쓰는 색시
58	-	군수와 아이	영지의 무영탑	중과 며느리
59	-	거짓말 잘하는 아이	봉덕사의 종	용왕의 딸

순	A.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년)	B.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년)	C. 『조선동화집』 (니카무라 료헤이, 1926년)	D.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년)
60	-	천치 신랑	호랑이와 짧은이	노루 콩지 없어진 이야기
61	-	쌍 평의 보은	지혜로운 응렴	거짓말해서 아내 얻은 사람
62	-	술 나오는 구슬	효자 이단지	원앙새
63	-	여우의 변신	-	옴두꺼비 장가든 이야기
64	-	세도재상과 한량	-	피 많은 부인 이야기
65	-	완고 학자님	-	범이 개 된 이야기
66	-	두꺼비의 보은	-	불어라 떨어져라
67	-	-	-	십 년간 지팡이를 두른 사람
68	-	-	-	머리 셋 가진 중과 포수
69	-	-	-	예쁜이와 버들이
70	-	-	-	자글대 이야기
71	-	-	-	회오리바람 재판
72	-	-	-	연이와 칠성이
73	-	-	-	해와 달이 된 이야기
74	-	-	-	꿀 강아지
75	-	-	-	까치의 보은

네 권의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228편의 각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같은 유형으로 판단되는 이야기가 두 군데 이상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 및 문체적 특성과 북한에 전해진 상황, 통일국가시대 초등 국어과 제재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1) 형제 이야기

형제를 소재로 한 전래동화는 초등 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제재이다. 형제간의 우애를 가르치는 교훈적 교재이면서 선행과 악행의 분별과 권선징악적 훈화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문학교육적으로는 문화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며 의사소통 및 다양한 삶의 경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설화에서 동화적 형상이 풍부한 것으로서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된 작품⁷⁾으로 《방이설화》를 꼽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이다.

[표 2]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형제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놀부와 흥부>	<놀부와 흥부>	<제비 다리>	<놀부와 흥부>
2	<말을 하는 거북이>	<말하는 남생이>	<거북이의 말>	<쿨떡이 이야기>
3	<검은 옥과 붉은 옥>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	<검은 구슬과 노란 구슬>	-
4	<세 개의 보물>	<두 형의 회개>	<세 개의 보물>	-
5	<금방망이 은방망이>	<금방망이 은방망이>	<세 개의 병>	-
6	<물속의 구슬>	<두 개의 구슬>	<물속의 구슬>	-
7	-	<착한 아우>	<신기한 절구>	<오형제>
8	-	<똑같은 재주>	<잉어 입에서 나온 구슬>	<맷돌 조롱박 장구>

7 장권표(1990), 앞의 책, 129면.

(1) 〈놀부와 흥부〉 유형

네 권의 책에 모두 ‘놀부와 흥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에는 <제비다리>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지만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널리 알려진 <놀부와 흥부>와 같다. 특히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동화집》 속의 <놀부와 흥부>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이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묘사와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나 심의린과 박영만의 책에 수록된 이야기보다 사건의 정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자의 두 책에서는 흥부의 집에 열린 박이 서너 개이지만 놀부의 집에 열린 박은 열 개를 훨씬 넘고, 놀부가 욕심이 많아 열린 박을 자를 때마다 재산을 빼앗기고도 계속해서 박을 열어 꾸중을 듣는 정황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심의린과 박영만의 책에 수록된 <놀부와 흥부>이야기는 그에 비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박영만의 <놀부와 흥부>는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채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총독부와 나카무라 료헤이의 <놀부와 흥부> 이야기에는 놀부와 흥부가 경상도와 전라도 어딘가에 사는 인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거의 유사한 줄거리이지만 다른 전래동화로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 <검은 옥과 붉은 옥>, <검은 구슬과 노란 구슬>이 있다. 이 세 편은 모두 부자 형과 가난한 아우 이야기이다. 아우가 형에게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쫓겨나 돌아오는 길에 조 이삭, 혹은 좁쌀을 주워서 떡을 지어 자신이 먹지 않고 불쌍한 노파에게 주게 된다. 불쌍한 노파가 감사의 의미로 귀한 구슬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구슬에서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찾아와 다그치는 바람에 구슬이 있던 곳을 알려주지만, 형이 찾아낸 구슬에서는 호랑이가 나와 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다. 이 또한 가난한 동생이 착한 일을 하여 복을 받고 욕심

많은 형이 벌을 받는 교훈을 담고 있다.

<놀부와 흥부> 유형과 유사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착한 아우>와 <세 개의 보물> 유형이 있다. <착한 아우>는 욕심 많은 형이 아우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지만, 아우는 우연히 호랑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산봉우리 뒤 샘물에 씻어 눈을 뜨고 큰 바위 아래에서 금 독은 독을 파다가 부자가 된다. 형은 아우를 따라 눈을 스스로 찌르고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갔지만 잡아먹힌다는 이야기이다. <세 개의 보물>과 <두 형의 회개>는 삼형제가 등장한다. 형들이 막내 동생의 재산을 빼앗고 쫓아내지만 막내는 착하여 스님을 구하고 세 가지 보물을 얻어서 좋은 집과 보물과 일하는 사람을 얻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재산을 되는데로 다 써버리고 동생이 한 것처럼 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여 동생의 집에 살면서 감동을 받아 회개한다는 이야기이다. <놀부와 흥부> 유형과 이야기의 구조가 유사하지만 착한 일을 하여 보물을 얻는 것과 우연히 보물을 얻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얻은 것이 다르며 형이 동생에게 감동을 받아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과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 등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달리 형이 착하고 아우가 못된 이야기로 <쿨떡이 이야기>가 있다.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동생 쿨떡이가 말썽을 피우고 어머니를 죽게 만들지만 그를 돌보느라 굶어죽을 지경인 형은 어머니 무덤에서 신기한 강아지를 얻어온다. 강아지가 하는 짓이 신기하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은 형이 부자가 되자 쿨떡이도 형에게 졸라 강아지를 가지고 장에 가서 강아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강아지를 죽이고 만다. 형은 강아지를 물어주어 보물이 열리는 나무를 얻고 쿨떡이도 따라하지만 똥물이 열리는 나무를 얻는다.

이 외에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동화집》과 심의린이 편찬한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금방망이 은방망이>도 형제이야기이다. 이 각편들은 <놀부와 흥부>의 욕심 많은 형과 착한 아우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깨비 방망이로 복을 받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혹부리 영감> 유형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형제 이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놀부와 흥부>는 북한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남북한의 공통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남한에서 출간된 <놀부와 흥부>류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데올로기적 변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어서 통일국가시대에 남북이 함께 활용하기에 좋은 제재로 보인다.

(2) 우애와 협력으로 복 받는 유형

형제의 우애가 깊어 복을 받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총독부와 나카무라 료헤이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에 같은 제목으로 각각 수록된 <물속의 구슬>과 심의린이 지은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두 개의 구슬>은 같은 유형의 이야기다.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형제가 우연히 귀한 구슬을 얻어 부자가 되어 살지만, 둘이 각각 결혼하여 분가할 때 구슬이 하나여서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을 하며 구슬을 버리기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구슬을 버리려 할 때 귀한 구슬을 하나 더 얻게 되어 둘 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잉어의 입에서 얻어낸 구슬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잉어의 입에서 나온 구슬>도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놀부와 흥부> 유형의 이야기가 권선징악에 초점을 둔 이야기인데 반해 <두 개의 구슬>이나 <물속의 구슬>은 형제간의 우애가 복을 가져온

다는 주제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와 유사한 구조이면서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기한 절구>이다. 가난한 형제가 나무를 하다 신기한 절구를 주워 부유하게 살게 되지만,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할 즈음에 절구를 서로 가지려 다투다가 절구가 땅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물속의 구슬> 이야기와 대조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매간의 우애를 담은 이야기로 <세 개의 병>이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다. 착한 오빠 최진순이 여동생 화향이와 살고 있었는데, 산사나이가 여동생을 데려가자 최진순이 여동생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가는 길에 노인을 만나 세 개의 병을 얻는데 이것은 여동생을 구해 산사나이로부터 도망하는 길에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기에 둘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줄거리이다. 이 또한 형제간의 우애가 복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주제이다.

또 여러 형제가 힘을 모아 대적을 퇴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똑같은 재주>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의 <오형제>와 <맷돌 조롱박 장구>는 여러 형제가 각각의 재주로 대적을 물리치고 복을 받는 이야기이다. <똑같은 재주>는 어느 집의 사형제가 각각 ‘흠치는 재주’, ‘알아내는 재주’, ‘백발백중 맞는 재주’, ‘바느질 재주’를 가졌다. 어느날 공주가 이무기에게 잡혀가서 공주를 찾아오는 이를 부마로 삼는다는 영이 내린다. 사형제의 재주로 공주를 구하고 형제의 공로가 똑같아 나라를 넷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오형제>에서는 글을 잘하는 박서방, 힘이 좋은 난장이, 콧김 센 사람, 활 잘 쏘는 이, 외다리 뛰는 이가 의형제를 맺어 공주를 이

기는 이를 부마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 왕궁으로 가서 외다리가 공주를 이기게 된다. 하지만 임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형제를 죽이려 할 때 오형제가 각자의 재주를 발휘하여 금덩이를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줄거리이다. <멧돌 조롱박 장구>는 의좋은 삼형제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어 각자의 길을 떠나서 성공하여 만나는 이야기이다. 첫째 형은 유산으로 받은 멧돌로 도적을 물리치고 금은보배를 얻고, 둘째형은 물려받은 조롱박으로 귀신을 속이고 처녀를 구하여 부잣집에 장가들고, 셋째는 물려받은 장구를 치며 갈 때 그 장단에 춤추는 호랑이를 만나 여러 장을 돌며 큰돈을 벌며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이다. <똑같은 재주>와 <오형제>는 형제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얻는 이야기이고, <멧돌 조롱박 장구>는 의좋은 형제가 사이좋게 살아감으로써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복을 받는 이야기이다.

북한에서도 《의좋은 형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나는 우애 좋은 형제가 매일 밤 서로에게 베탄을 가져다 놓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금덩이를 얻어 나누어 가지지만 우애가 깨질까봐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는 이야기이다. 북한에서는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⁸ 민화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우애와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은 교육적 제재로 매우 적합하다. 게다가 남한과 북한의 공통으로 향유하고 있으며 이어가야 할 전래동화이기에 통일국가시대 이야기 제재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8 장권표(1990) 위의 책, 123면.

2) 흑과 도깨비 방망이에 얽힌 이야기

[표 3]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흑과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자료 조선동화대집》 (심의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흑 떼이기, 흑 받기>	<흑 달린 늑은이>	-	<흑 떼 이야기>
2	-	-	-	<코 길어진 욕심쟁 이>

<흑 떼이기, 흑 받기>와 <흑 달린 늑은이>는 남한에 흔히 알려진 동화 <흑부리 영감>과 같은 구조를 가진 이야기이다. 북한에서도 선량한 박노인과 욕심 많은 최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흑 떼 이야기>’는 매우 형상이 생동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속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⁹로 표현되어 있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흑 달린 한 정직한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 노래를 부르고 흑을 주고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지만, 그것을 욕심 많은 사람이 오히려 흑을 하나 더 붙이게 되고 혼이 난다는 이야기이다.

그에 비해 박영만이 편찬한 《조선전래동화집》의 <흑 떼 이야기>는 흑이 달린 정직한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 흑을 떼게 된 이야기로만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전래동화집》에는 <흑부리 영감> 이야기와 구조는 같지만 주인공이 소년인 이야기로 <코 길어진 욕심쟁이>가 있다. <흑 떼이기, 흑 받기>는 주인공을 ‘흑 달린 남자’로, <흑 달린 늑은이>에서는 주인공이 ‘흑 달린 늑은이’이고 <흑 떼 이야기>의 주

9 장권표(1990), 위의 책, 131면.

인공도 ‘혹 달린 노인’이지만 <코 길어진 욕심쟁이>는 주인공이 혹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년’이다. ‘마음씨 고운 소년’은 가족에게 주려고 나무하다가 주워 두었던 개암을 깨물자 도깨비들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을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다. 마음씨 나쁜 소년은 개암을 깨물자 도깨비에게 잡혀 코가 길어지는 벌을 받고 울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재로서 내용면에서는 특별한 저축 사항이 없어 보이는 권선징악형 도깨비 이야기이다.¹⁰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세 권의 동화집에 수록되었고, 특히 북한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한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되어 북한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에서는 ‘거짓과 탐욕을 징계하고 선량한 성품을 찬양하는’¹¹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어서 통일국가시대 교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으로서 동질성을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3)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표 4]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	<金得仙의 後悔>	-	<선녀의 옷과 수탉>

10 <혹부리영감>이야기는 조선시대 중기 문신이었던 강항의 『수은록(睡隱錄)』에 일본의 유명한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1915년 이후 『조선어독본』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 동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11 장권표(1990), 앞의 책, 131면.

현재 남한에 널리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 유형의 이야기는 조선인 심의린과 박영만이 편찬한 동화집에만 수록되어 있다. 심의린의 《조선 동화대집》에 실린 <김득선(金得善)의 후회>에는 ‘금강산 구룡폭포’ 등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주인공이 선녀를 얻는다는 의미인 ‘득선(得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슴을 구해 주고 사슴이 전해준 대로 선녀의 옷을 숨겨 장가를 들지만 아들을 셋 낳기 전에 옷을 내어주는 바람에 선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 가버리게 되어 후회한다는 내용에서 끝을 맺는다. 내용상으로는 널리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 유형의 이야기이다. 다만 우리말로 발행되긴 하였으나 군데군데 한자어가 많아 초등학교생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주해나 번역이 필요해 보인다.

삼신산 [삼신산(三神山): 금강의 봉래산, 지리의 방장산, 한라의 영주산]의 하나인 금강산 밋헤 性은 金이오 일홈은 得仙이라 하는 兒孩가 잇섯습니다. 일즉 父母를 離別하고 홀로 親戚의 家에 依託하여 困窮하게 生長하나, 天性이 純良하고, 心法이 正直하여 洞里사람들이 모다 稱誦이 藉藉하얏습니다.¹²

위 각주1)에서 보듯이 우리말 토가 달리긴 하였으나 한자어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분단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였음을 확인 하였으니 통일국가시대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주해와 번역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만이 편찬한 <선녀의 옷과 수탉>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채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공간을 제시하지 않고 ‘옛날도 옛

12 심의린 편집(대정15년),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78-179면.

날 아주 오랜 옛날,¹³로 시작하는 전형적 전래동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옛날도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곳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살림이 구차했던고로 총각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는 그것을 장에 가지고가서 팔아다가는 그날그날을 부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짐해서 작대기를 버리어놓고 땀을 씻으면서 쉬고 있노라니까, 사슴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뛰어오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뒤로 포구가 날 죽이려고 따라오니, 황송하지만 날 좀 숨겨줍소서.』¹³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박영만이 채록한 <선녀의 옷과 수탉>은 한자어가 많지 않고 구어체로 되어 있어 초등에서 활용하기에 더 용이하다. 또 이 이야기는 <김득선의 후회>가 선녀승천 모티브에서 이야기를 끝맺는 것과 대비하여 그 이후에 나무꾼 총각이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티브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용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어머니가 끓여주는 호박죽을 먹다 말에서 떨어져 하늘로 가지 못한 모티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야기의 결말부에 수탉이 지붕에 올라가 하늘 보고 우는 이유를 아이들과 아내를 그리는 나무꾼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금강산팔선녀>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나뭇물을 캐며 사는 초부가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선녀와 결혼하여 살았으나 날개옷을 내어주자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가버린다.

13 박영만(소화15년), 《조선전래동화집》, 주식회사 학예사, 117면.

이후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 같이 살다가 금강산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선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온 이 전설은 여러 변종을 가지고있으나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는 그닥 변화가 없다. 이 전설은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인가를 초부와 선녀의 형상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선녀들이 금강산의 물을 퍼올려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 하늘의 세계가 금강산의 세계보다 못하며 선녀와 초부가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금강산이 불러일으킨 낭만적 환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다.¹⁴

<선녀와 나무꾼> 유형인 두 이야기가 분단 이전부터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현재 남한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형된 부분이 많지 않다. 북한에서도 특별히 사상적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회자되고 있어서 통일국가 시대 국어과 제재로 활용하기에 좋다고 판단된다.

14 장권표(1990), 앞의 책, 94면.

4) 계모와 의붓딸 이야기

[표 5]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계모와 의붓딸 이야기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의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	<콩쥐 팥쥐>	-	<장화와 홍련>
2	-	-	-	<예쁜이와 버들이>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에 실려 있는 <콩쥐팥쥐>는 계모가 전처소생 콩쥐와 자신이 낳은 딸인 팥쥐를 차별하고 콩쥐를 학대하는 이야기이다. 다만 요즘 남한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는 다소 다른 모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남한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계모는 콩쥐에게는 어렵거나 많은 일을 시키고 팥쥐에게는 간단한 일만 시킨다. 밭 빠진 독에 물 길어다 붓기 모티브에서는 두꺼비가 아니라 ‘자라’가 나와서 독의 밑구멍을 막아준다. 이어서 나무호미로 밭 매기 모티브에서는 암소가 나와서 콩쥐를 도와 밭을 매어줄 뿐 아니라 맛있는 과실을 준다. 여기서 팥쥐가 콩쥐가 얻어온 과실을 얻기 위해 암소를 속이려했는데 암소는 팥쥐에게는 과실을 주지 않고 가시덤불로 끌고 다니는 바람에 팥쥐가 가시덤불에 긁히게 된다. 이 모티브는 <흥부놀부>나 <흑부리 영감>에서 놀부나 마음씨 나쁜 영감이 착한 주인공을 따라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과 흡사하다. 다른 과업을 무사히 해낸 콩쥐가 수수밭을 매는 과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을 따라 하려던 팥쥐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만다. 이 마지막 동아줄 모티브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마지막 모티브와 유사하다.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에는 <장화와 홍련>, <예쁜이와 버들이>가 모두 의붓어머니에게 학대 받는 딸의 이야기이다. <장화와 홍련>은 장화와 홍련이라는 자매가 의붓어미에게 학대받는 이야기다. 의붓어미는 장화를 모함하여 낙태를 하였으며 외가로 보내는 척하며 못에 빠뜨려 죽이고 홍련도 언니가 죽은 못을 찾아가 자살하고 만다. 이후 고을 부사가 부임하여서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의붓어미의 잘못을 밝혀내고 장화와 홍련의 무고함을 밝힌다는 남한에서 현재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예쁜이와 버들이>는 마음씨 나쁜 의붓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예쁜이가 겨울철에 나물을 해오라는 명을 받고 산으로 가서 버들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한 겨울에 나물을 하러간 예쁜이가 어느 굴속 바위 저편에서 푸릇푸릇한 나물을 발견하고 버들을 만나 바구니에 나물을 해서 집으로 간다. 어느날 의붓어미는 예쁜이를 몰래 쫓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버들을 죽여버린다. 그래도 예쁜이에게는 버들이가 준 세 가지 병이 있어서 죽은 버들을 살려내고 둘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콩쥐와 팥쥐>는 남북한에서는 모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고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린)에 실린 이야기에 더 많은 모티브가 첨가되어 전해오기도 한다.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서에는 ‘중세기에 창작된 권선징악 즉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주체사상적 내용으로 하는 설화들이 대부분이 이 류형에 속한다. 민화 《콩쥐팥쥐》, 《세가지 소원》, 《섬처녀》 등은 그 대표적 작품이다’¹⁵고 기술하고 있

15 장권표(1990), 앞의 책, 123. 같은 책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 후에 《콩쥐 팥쥐》를 각색한 가극 《콩쥐 팥쥐》를 보시고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생활 풍습, 정의로운 사상과 지향을 무대위에 아름답게 살리면 좋다고 가르치시었으며 또한 《콩쥐팥쥐》를 가극화한 《꽃신》을 보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계모는 시대적 제약성이 낡은 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다. 내용 면에서도 초등학교용 제재로 활용하기에도 무난해 보인다. <장화와 홍련>은 낙태나 자살 등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제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번안이 필요하다. <예쁜이와 버들이>는 초등학교용 제재로 사용하기에 무난하며 북한 지역의 방언과 어투가 있어 그 점은 통일국가시대 국어과의 제재로 활용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5) 아들 이야기

[표 6]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아들 이야기 유형별 목록

유형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효자	-	<효자의 도움>	-	<효자와 산삼>
	<선녀의 날개옷>	<천도 얻은 효자>	-	
피 많은 아들	<한 겨울의 딸기>	<군수와 어린 아 이>	-	<자글대 이야기>
	<어머니를 버린 남 자>	<늙은 아버지를 내다 버린 사람>	-	-

(1) 효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화집》에 실린 <선녀의 날개옷>은 효자가 깊은 산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는 모티브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담고 있지만 효행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효자는 선녀의 날개옷을 돌려주는 대신 병든 아버지를 치료할

고 기술하여 <콩쥐 팥쥐>에 대해 북한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고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천도복숭아를 얻는다. 결말부에서 천도복숭아를 세 개 얻어 하나를 마당 옆 소나무 밑에 묻었기에 그때부터 소나무가 상록수가 되었다는 유래담 형식을 보여준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에는 <천도 얻은 효자>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효자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효자가 의도적으로 선녀의 옷을 훔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이야기여서 초등교재로 활용되기에 더 알맞다. 결말부는 소나무의 상록수 유래담 대신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 풀이 형태로 되어 있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의 <효자의 도움>과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의 <효자와 산삼>은 같은 유형이다. 효자가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던 중 노승이 아들을 삶아 약으로 먹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 병을 고쳤다. 알고 보니 삶은 것은 산삼이고 진짜 아들은 나중에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에는 ‘노모(老母)’, ‘일심(一心)’, ‘목욕재계(沐浴齋戒)’, ‘불문곡직(不問曲直)’ 등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은 한자어가 초등학교도 어렵지 않을 정도의 일상어만 사용되고 있고 더 쉽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교재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조선동화대집》에도 제목만을 보면 <효자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불사약을 구해오던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약을 빼앗기고 섬나라로 떠가서 피리를 불어 보물을 구해 집으로 오는 이야기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대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형제이야기에 포함하였다.

(2) 꾀 많은 아들 혹은 아버지를 깨우치는 아들

아들과 부모 이야기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고민이나 어리석음을 아들이 꾀를 내어 깨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한 겨울의 딸기>는 고약한 군수로부터 한 겨울에 딸기를 따오라는 명령을 받고 고민에 빠진 아버지를 구한 영리한 아들의 이야기이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이지만 딸기가 아니라 한 겨울에 참외를 구해오라는 군수의 명령을 받은 좌수가 아들의 영특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란)에 수록된 <군수와 어린아이>이다. 이 유형은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자글대 이야기>에 담긴 여러 모티브 중 한 가지와 동일하다. 양반이 머슴살이의 아내를 뺏으려 하자 그 아들인 자글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양반은 머슴살이에게 아내가 맨 김풀이 몇이나 되는 지 알아오라 하고, 재로 동아줄을 꼬아 오라고 하고, 한 겨울에 멍석딸기를 따오라고 시키고, 자갈돌로 배를 만들라는 역지를 부리지만 모두다 아들인 자글대가 영특하게 해결한다. 그러자 양반은 자글대를 죽이려고 서울로 가는 길에 당나귀 결마를 잡게 한다. 자글대가 양반과 함께 서울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교만한 부자가 몰락하는 유형의 전래동화 가운데 <외쪽의 꾀>와 같은 내용이다. <자글대 이야기>는 힘이 약한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하는 영특한 아들의 이야기이면서 힘이 센 양반의 역지에 저항하는 어린아이의 힘이 양반을 몰락시키는 이야기이다.

북한에서도 이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용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삼동의 딸기》는 <한 겨울의 딸기>, 《꾀돌이의 이야기》는 <군수와 어린 아이>, 《지주와 머슴》은 <자글대이야

기>와 같은 유형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구전동화에는 전설적인 특성이 많은 이런 환상동화들과 함께 환상이 없이 생활 자체의 논리로 예술적 허구에 의하여 창조되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형태의 동화는 봉건 말기에 창작된 재담적 민화와 직접 연결되어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삼동의 딸기》, 《피돌이의 이야기》, 《지주와 머슴》, 《병풍 속의 호랑이》, 《어린 재판관》, 《수들의 피》, 《선비와 초동》 등은 봉건말기에 창작된것으로서 재담적 민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⁶

북한에서는 피가 많은 아들 이야기류의 설화에 대하여 ‘피돌이를 긍정적 주인공으로 하고 부정적인 주인공으로 지주, 고을원 대신 암행어사, 선비, 훈장,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착취사회의 각이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생활과 연결된 현실의 각이한 측면을 보여주면서 착취사회가 빚어내는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⁷고 설명한다. 남한에서 아이일지라도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데에 반해 착취하는 악인이나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통일국가시대의 교재로 활용될 경우에 그 효율성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양반이 아니라 아버지를 깨우치는 아들 이야기로 <어머니를 버린 남자>, <늙은 아버를 내다버린 사람>이 있다. 두 이야기는 모두 마음씨 나쁜 아들이 늙고 병든 어머니나 아버지를 지계에 메고 산속으로 가서

16 장권표(1990), 앞의 책, 135면.

17 장권표(1990), 위의 책, 138면.

지계까지 버리고 돌아서는데, 보고 있던 손자가 지계를 다시 메고 오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버릴 때 쓰겠다는 말을 하여 깨우침을 준다는 내용이다. <어머니를 버린 남자>에서는 인물의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지 않지만, <늙은 아버지를 내다버린 사람>은 손자의 이름을 ‘갑득’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에 실린 <늙은 아버지를 내다버린 사람>은 거동(舉動), 괴변(怪變), 불측(不測) 등 일제강점기 우리말에 포함되었던 한자어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어 초등학교를 위한 제재로 사용할 때는 다소간의 각색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야기의 장면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동화집》(조선총독부)에 수록된 <어머니를 버린 남자>는 일본어로 수록된 것을 최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어서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게 묘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6) 지혜 다툼 이야기

[표 7]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지혜 다툼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의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	<삼인의 학동>	-	<헌데장이 코흘리 개 눈척척이>
2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염소의 환갑 연 회>	-	<토끼와 사슴과 두 꺼비>
3	-	<자리 다툼>	-	-

말로 지혜를 다투어 상을 받거나 상대를 제압하는 논쟁 이야기가 7편

이다.

<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는 토끼와 거북이와 두꺼비가 서로 상석에 앉기 위해서 품행을 망치는 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싸움을 한다. 토끼가 술이 싫어 주점 근처를 못간다고 말하자 거북이는 술을 만드는 재료인 보리밭 곁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때 두꺼비는 쓰러지면서 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취해서 쓰러진다고 하여 상석에 앉는다는 이야기다. 같은 내용인 <자리다툼>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린)에 실렸다. <자리다툼>에서는 강통강통, 털석털석, 쫓긋 등의성의태어가 많이 사용되어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이 돋보인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린)에는 자리를 다투는 이야기로 <염소의 환갑 연회>도 실렸다. 염소의 환갑연에서 여우가 자신의 연치와 박람을 자랑하며 상좌에 앉으려하나 거북이 나타나 자신이 더 높은 연치를 가졌음을 이야기하여 상좌에 앉는다는 이야기다. 이 책의 특성상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지만 부지중(不知中), 북단거동(北壇擧動) 등 한자어가 들어 있다.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된 <토끼와 사슴과 두꺼비>는 밥상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두꺼비가 제일 먼저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들 다툼 이야기는 논쟁에 대한 우화로 초등 국어과 제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남한에서는 이미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북한에도 이들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음이 확인된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주는 우화에는 사람들의 도덕적완성에 장애로 되는 부정적인 성격을 풍자묘사함으로써 심각한 교훈을 찾으려 이끌어주는 이야기들이 많다. 우화 《황새, 개미, 메뚜기의 천렵놀이》, 《미련한 호랑

이와 부지런한 황소», 《원숭이 재판», 《두꺼비의 소원》 등은 그 대표적 사례로 된다.¹⁸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동화집》의 <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는 그야말로 말로 지혜를 겨루는 이야기이다.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던 여우가 말싸움에서 져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다. 말싸움 과정에서 개구리의 지혜를 볼 수 있어 초등학교도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이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의 <삼인의 학동>과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의 <헌데장이 코흘리개 눈첩첩이>는 같은 유형의 전래동화이다. <삼인의 학동>은 서당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며 ‘코흘쩍이’, ‘머리 현 놈’, ‘눈병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동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자신의 습관을 고치며 떡먹기 내기를 하도록 한다. <헌데장이, 코흘리개, 눈첩첩이>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사람이 떡을 먹으며 자신의 나쁜 버릇인 코를 흘쩍이지 않거나 굶지 않거나, 눈에 손을 대거나 깜짝 거리지 않도록 내기를 하지만 제 각각 꾀를 내어 움직인다는 이야기다.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7) 은혜 값은 까치 이야기

[표 8]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은혜 값은 까치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의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종을 친 까치>	<쌍평의 보은>	-	<까치의 보은>

18 장권표(1990), 위의 책, 145면.

은혜 값은 까치 이야기는 《조선동화집》,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되어 있어 통일국가시대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재로 판단된다. <종을 친 까치>는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무사가 뱀에게 잡아먹히려던 까치 두 마리를 살려주고 그날 밤 죽은 뱀의 암컷에게 보복을 당할 때 까치가 종을 쳐 목숨을 구한다는 이야기이다. <쌍평의 보은>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까치 대신에 ‘평’을 등장시킨 점이 다르며 ‘고소성의한산사(姑蘇城外寒山寺)에 야반종성도 객선(夜半鐘聲到客船)’이라는 한시 구절과 연결하여 끝을 맺는다. <까치의 보은>도 같은 내용인데 박영만이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쉬운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었고 의성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이 있다.

북한에서는 <치악산전설>로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날 인민들속에서 이런 전설이 전해진 것은 미물인 짐승도 이러한진대 인간은 응당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설의 기초에는 인간의 량심과 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 자들을 짐승보다 못한 놈으로 저주하여온 우리 인민들의 도덕률리적 견해와 사상 감정이 놓여 있다¹⁹

<은혜 값은 까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남북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며 회자되고 있어 통일국가시대의 교재로 활용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19 장권표(1990), 위의 책, 86-87면.

8) 호랑이 이야기

우리 전래동화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보편적이고 많다는 점이 일제강점기 필사된 전래동화집에서도 확인된다. 통일국가시대에 우리 전래동화로 호랑이 이야기가 활용되기 쉬운 제재임을 알 수 있다.

[표 9]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호랑이 이야기 유형별 목록

유형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해와 달	<천벌 받은 호랑이>	<악독한 범>	-	<해와 달이 된 이야기>
꽃감	<검쟁이 호랑이>	<호랑이를 잡은 도적>	-	<꽃감 이야기>
은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은혜 모르는 호랑이>	-	-

(1) 〈해와 달〉 유형

해와 달의 유래담으로 오누이와 호랑이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동화집》,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다. <천벌 받은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어머니 흉내를 내며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찾아오자 오누이가 나무에 올라가 빌어서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 해와 달이 되고 천벌 받은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악독한 범>와 <해와 달이 된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다. <천벌 받은 호랑이>와 <악독한 범>에서는 오라비가 해가 되고 누이동생이 달이 된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그에 비해 <해와 달이 된 이야기>는 표현이 더 쉽고 생생하며 누이동생이

달이 되었지만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여 해가 되고, 오라비가 달이 되었다는 모티브를 더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널리 알려져 왔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구전설화는 주로 학교 교육 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 전승되는데²⁰ 그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국가시대에 남과 북이 사용할 초등 국어과 제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야기로 판단된다.

(2) 꽃감과 호랑이 유형

<겍쟁이 호랑이>는 민가에 소를 잡아먹으러 갔던 호랑이 이야기이다. 아기가 울다가 꽃감을 준다는 말에 울음을 그치자 호랑이는 꽃감을 무서워한다. 그때 소도둑이 나타난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올라타자 호랑이는 꽃감인줄 알고 냅다 달리고 결국 소도둑은 나무에 매달려 호랑이 등에서 벗어난다. 호랑이도 꽃감이 떨어져 나가 기뻐하지만 토끼는 사람이 숨어있는 나무 구멍을 꼬리로 막으며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한다. 사람은 토끼의 꼬리를 끈으로 묶어 잡아당기자 토끼의 꼬리가 끊어져 짧아졌고 호랑이는 그것을 보고 꽃감이 무섭다며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이다. <호랑이를 잡은 소도둑>은 호랑이가 배가 고파 민가에 가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광경을 보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울던 아이는 꽃감이 아니라 어머니가 ‘꼭쥐가 왔다’고 하자 울음을 그친다. 꼭쥐는 꼭재우 장군을 말한다. 그때 소도둑이 나타나 호랑이 등에 타지만 호랑이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불알을 끈으로 묶어 매달아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이다.

20 김기창·이복규 엮음(2005),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 서울: 민속원, 17면.

<꽃감 이야기>는 세 이야기가 공통으로 가지는 가장 기본적 모티브만을 가진 이야기이다. 뱀이 민가에 내려가 아이를 달래던 어머니가 ‘꽃감’이 왔다는 말을 하자 아이가 그치는 것을 보고 꽃감이 무서워 달아났다는 이야기이다. <꽃감 이야기>는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채록된 것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제재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에 알맞게 쉽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3)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는 《조선동화집》과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동화집》(조선총독부)의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남한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구렁이에 빠진 호랑이를 나그네가 구해주었는데도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한다. 소와 나무에게 물어도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여우에게 재판을 하니 원래의 모습대로 구렁이에 들어가게 되고 나그네와 여우는 갈 길을 간다는 이야기이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린)의 <은혜 모르는 호랑이>도 유사한 줄거리이기는 하나 뒷에 걸린 호랑이를 노승이 구해주며 칠녕쿨과 토선생(토끼)에게 물어본다는 내용이다. 토끼가 ‘시초부터 하던 모양과 형편’을 알아본 후에야 판결을 하겠다며 호랑이를 지함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앞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오결(誤決), 지함(地陷) 등 한자어가 많지만 이야기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래도 초등학교용 제재로는 최근에 번역된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더 적절해 보인다.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는 없지만 동물보다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이야기가 <노인과 양자, 사슴, 뱀>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9) 바보 이야기

전래동화에는 똑똑한 사람뿐 아니라 바보스러운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여러 편 있다. 특히 우리말로 발간된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다.

[표 10]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바보 이야기 유형별 목록

유형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떡보	-	<떡보의 성공>	-	<지혜 다투기>
	-	<떡보의 실언>	-	
난장이	-	<호랑이 모집(5)>	-	<난장이의 범사냥>

(1) 주인공이 〈떡보〉인 유형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익린)에 수록된 <떡보의 성공>은 중국 사신과 재주 겨루기를 한 떡보가 우연히 이기게 되어 사신을 놀라게 한 이야기이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에 <지혜 다투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자는 심익린 특유의 문체와 한 자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는 쉬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초등 제재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한편 <떡보의 실언>은 바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공 이야기는 아니다. 떡보가 떡을 끊고 술을 먹겠다고 말한 후 술을 ‘다섯 개’ 먹었다거나 ‘꿀에 찍어’ 먹었다거나, ‘안반 머리’에서 먹었다고 말하여 거짓말이 탄로 나는 이야기이다. 이 또한 초등 제재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2) <난장이의 범사냥>

<난장이의 범사냥>은 사람의 손바닥보다 작은 난장이가 범사냥을 나가 수천마리의 범들에게 잡혀서 춤을 추다가 왕범이 뱃속으로 들어가 똥집 속살을 베어 먹었다. 왕범은 배가 아파서 다른 범을 물어 죽였고 난장이가 왕범의 뱃가죽을 찢고 나오니 수천 마리 범이 모두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심의린)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아홉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번 이야기는 같은 유형이 아니지만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살을 베어 먹고 나오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오지독 장사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칼로 고기를 저며 먹었더니 호랑이가 죽었고 오지독 장사는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자를 우습게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

10) 재판 이야기

[표 11]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재판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의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원숭이 재판>	<원숭이 재판>	-	<회오리바람 재판>
2	-	<달떡>	-	<소고기 재판>
3	-	-	-	<삼백냥 재판>

재판 이야기는 사건의 정황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교육용 제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원숭이 재판>은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 같은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조선동화집》의 <원숭이 재판>은 여우와 개가 고깃덩어리로 다투며 원숭이에게 재판을 부탁하는 과정을 대화체를 많이 사용하여 그리고 있으며 원숭이가 고깃덩어리를 잘라 더 큰 쪽에서 고기를 베어 먹는 부분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분단이후 북한에서도 <원숭이 재판>은 ‘도덕적 완성에 장애로 되는 부정적 성격을 묘사 풍자함으로써 심각한 교훈을 찾도록 이끌어 주는 이야기’²¹ 대표적 우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서는 개가 아닌 이리와 여우가 다투어 재판을 하게 된 경위와 원숭이의 판결 부분을 쉽고 간명하게 그리고 원숭이가 자른 고깃덩어리에서 자꾸만 고기를 잘라먹는 부분은 설명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재의 성격에 따라서 후자는 더 간결하게 그려졌으며 후자는 대화체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그려진 이야기 제재 활용에 알맞다. 이와 관련하여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달떡>은 재판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교한 자가 핑계를 대서 떡을 떼어먹는 모티프가 담겨 있다는 점이 앞의 두 이야기와 같다. 어린애가 가진 떡을 금돌이가 반달을 만들어준다며 떼어 먹고 삼각산을 만들어준다며 또 떼어 먹어도 어린애는 떡을 뺏긴 것을 알지 못하고 모양을 만든 것만 좋아한다는 이야기이다.

박영만이 북한 지역에서 채록한 《조선전래동화집》에 수록된 <회오리바람 재판>은 질그릇 장수가 회오리바람 때문에 질그릇을 몽땅 깨어버려 원님께 억울함을 호소한 이야기이다. 원님은 대동강 뱃사공 두 명을 불러 질그릇 값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다.

<소고기 재판>은 나그네가 자기가 구워먹는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

21 장권표(1990), 앞의 책, 145면.

이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소송을 건다. 원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값을 치르라고 하였는데, 돈을 보여주지만 하고 빼앗았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나그네에게 물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권선징악이 뚜렷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내용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남한에 이미 알려져 있고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서 채록한 이야기라 통일국가시대 국어과 제재로도 활용하기에 좋다.

<삼백 냥 재판>은 돈으로 양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양반집에 삼백 냥을 맡겨두고 십년간 머물다가 떠나려고 돈을 돌려달라니 맡은 적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아 송사가 시작된다. 원님은 아내가 배신한 것을 알아내고 증거를 잡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라고 판결을 한다. 어렵지 않은 어휘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내의 배신이라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에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1) 우정 이야기

[표 12]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우정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바보 점쟁이>	<돌 두꺼비>	-	-

《조선동화집》에 수록된 <바보 점쟁이>는 가난하고 바보스런 돌이와 영특하고 부자인 개구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개구리는 돌이가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 자기 아버지의 은수저를 숨겨 돌이가 알아맞히게 한다. 점쟁이로 높이 칭송 받게 된 돌이는 중국 황제가 잃어

버린 도장을 찾으러 불러간다. 우연히 나뭇잎을 보고 중얼거린 말이 옆에 있던 도둑의 이름과 같아 도장을 찾게 되고, 황제가 손에 쥔 것을 맞추라는 말에 친구 개구리를 부르다가 개구리가 들어있음을 맞춰 금은보화를 받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담화재료 조선동화집》에는 <돌 두꺼비>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돌이와 두꺼비로 주인공 이름이 다소 변화되었고, 찾는 것도 은수저 대신 ‘은탕기’, 도장 대신 ‘옥새’이다. 중국 황제가 맞추라는 것도 개구리 대신 ‘두꺼비’일 뿐 전체 줄거리는 동일하다. 전자는 최근에 번역되어 초등학교생이 읽기에 무난하며, 후자는 몇몇 한자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전래동화에서 그리 많지 않은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또 남한에 출간된 《북한 전래동화집》²²에 실린 <인범이와 지범이>와 같은 유형의 서로 다른 각편이다. <인범이와 지범이>에서는 돌이 같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인범이네 집 은수저나 은탕기 대신 열쇠꾸러미를 찾으며, 중국 황제가 아니라 대궐의 임금님께 불려가서는 ‘이격 비격’이라는 의성어와 도둑 형제의 이름이 같아 도둑을 잡게 된다는 디테일의 차이를 보이지만 같은 유형이다.²³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이후 최근 북한에서 간행된 책에도 수록되었으니 통일국가시대 국어과 제재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해 보인다.

22 이상배(2018), 『북한전래동화집』, 좋은꿈.

23 전래동화가 분단이후 남북에서 각각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창작동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12) 토끼전 이야기

[표 13]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토끼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심부름꾼 거북이>	<별주부>	-	-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과 관련된 전래동화도 《조선동화집》과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 실려 있다. 두 이야기는 줄거리가 유사한 같은 유형이다. <심부름꾼 거북이>는 거북이가 용왕의 딸을 살리기 위한 약인 토끼의 간을 찾아 육지로 나와 토끼를 꺾어 용궁으로 가다가 토끼에게 사실을 말한다. 거북이는 토끼의 간을 가지러 돌아갔다 와야겠다는 말에 속아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준다. <별주부>는 같은 줄거리이나 판소리계소설의 내용에 더 가깝다. 토끼를 몰라 화상을 그려 가지고 토끼를 묘사하고, 용궁까지 당도한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별주부>에는 한자어가 많이 쓰였지만 판소리계 소설답게 훨씬 더 리드미컬한 문체로 되어 있다.

13) 교만한 부자의 몰락 이야기

[표 14]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교만한 부자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심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세 개의 구슬>	<네모진 보석>	-	-
2	-	<외쪽의 꺾>	-	-

교만하고 심술궂은 부자가 몰락하는 이야기는 남한 사회에서는 일종의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북한 사회에서 계급간의 갈등 이야기로 더 강조되었을 수 있다. 교만한 부자가 몰락하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전래동화집에도 세 편이 있다.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에는 <네모진 보석>과 <외쪽의 피>가 실려 있다. <네모진 보석>은 원래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신선에게 네모 모퉁이에서 값진 것이 나오는 보석을 받아 거부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괴악하게 산다. 어느 날 네모진 보석을 자랑하느라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재물을 받아내고 있다가 미운사람을 죽게 하는 모퉁이에 대고 그 거부가 미우니 죽으라는 말을 누군가 하게 되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가난할 때 마음을 잊고 욕심 많고 괴악한 부자가 된 이의 몰락을 보여주기에 권선징악을 일깨운다. <외쪽의 피>는 교악한 부자가 가난한 외쪽이라는 하인을 데리고 서울을 가면서 자기 혼자만 밥을 사 먹고 외쪽이는 굶기므로 외쪽이 피를 내어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주인 집 딸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교악한 부자는 제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는다는 이야기이다. 통일국가시대 초등 제재로 두 이야기가 모두 적합하다.

<세 개의 구슬>은 <네모진 보석>과 같은 유형이다.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은 가난한 사람이 전생주(錢生珠), 곡생주(穀生珠), 여사주(汝死珠)를 얻어 부자가 되어서는 가난한 사람을 잊고 교만하게 굴다가 누군가 여사주에 대고 ‘너 죽어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교만한 자는 몰락한다는 교훈을 갖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두 동화집에 나란히 실린 것으로 보아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통일국가시대 남북이 함께 사용할 제재로 적합해 보인다.

14) 거짓말 이야기

[표 15] 일제강점기 전래동화집 수록 거짓말 이야기 목록

순	《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 (삼익린, 1926)	《조선동화집》 (나카무라 료헤이, 1926)	《조선전래동화집》 (박영만, 1940)
1	-	<거짓말 잘하는 아이>	-	<거짓말해서 아내 얻은 사람>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발행된 동화집에 ‘거짓말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두 편이 있다. <거짓말 잘하는 아이>는 생원이 아이에게 자신을 속일 수 없을 거라며 거짓말을 해보라고 시키는데 결국 아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자신의 과실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이다. <거짓말해서 아내 얻은 사람>도 험악한 세상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고 잘하는 이에게 사위 삼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 잘하는 이를 사위 삼게 된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능력으로 보는 세계관에 대해 결국 과오를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로 어른을 깨우치는 내용이다.

4. 결론

오랜 단절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시대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아동문학 제재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남북 분단시기에 각자의 이념적 가치관을 입혀 전래동화를 활용해오던 남북이 통일국가시대에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전래동화의 형태는 어떠하여야 할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민족 최초로 발간된 전래동화집을 중심으로 내용 유형별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통일국가시대 국어과 교재에서 활용 가능한 아동문학 제재로서 전래동화의 의미는 첫째, 남과 북의 단절보다 훨씬 긴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는 점, 둘째, 남북한의 언어문화적 기반을 확인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셋째 남북 공동으로 조상의 지혜와 사상과 정서를 확인하며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네 권의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228편의 각편을 탐색하여 대표적 14가지 유형에 대하여 내용 및 문체적 특성과 통일국가시대 아동문학 제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형제 이야기, 흑과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계모와 의붓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지혜 다툼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바보 이야기, 재판 이야기, 우정 이야기, 토끼전 이야기, 교만한 부자의 몰락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유형별로 하위 각편을 살펴 그 특징과 통일국가시대 제재로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후에도 남북한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전래동화의 다양한 변형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한 탐색,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성에서의 활용 의미와 방법 등과 연계하여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권혁래 역저(2003), 『조선동화집-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의 번역·연구』, 집문당.
김영주·이시준 역(2016),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박문사.
박영만(권혁래 옮김, 2013),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도서출판 보고서.
심의린(신원기 역해, 2009), 『조선동화대집』, 보고서.

2. 논문 및 평론

- 김경희, 「북한 옛이야기 그림책의 출판 상황과 교류에 대한 기대」, 『아동문학평론』 43, 아동문학평론사, 2018, 53~64면.
김태호, 「통일 한국의 국어교과서 제재로서 북한 아동문학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6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7, 267~289면.
마성은, 「북측의 변화가 반영된 동요·동시-2018년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4집, 우리어문학회, 2019, 7~36면.
마성은, 「선군시대 북한 아동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대학원, 2018.
박금숙, 「남북한 초등 국어교과서 수록 전래동화 비교 연구」, 『동화와 번역』 제31집, 건국대학교동화와 번역연구소, 2016, 83~108면.
서동수,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집, 동화와번역연구소, 2005, 87~114면.
선안나, 「북한 아동문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학문적 성과물」, 『한국아동청소년문학연구』 1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3, 237~242면.
원종찬, 「북한 아동문학의 기원」, 『한국아동청소년문학연구』 1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9~142면.
이영미,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225~259면.

3. 단행본

- 김기창·이복규 엮음(2005), 『분단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 민속원.
김화경(1998), 『북한 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원종찬(2012),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이상배(2018), 『북한전래동화집』, 좋은꿈.

이재철(2007),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장권표(1990), 『조선 구전문학 개요』, 한국문화사.

정인선(2014), 『북한 애니메이션(아동영화)의 특성과 작품정보』, 도서출판 선인.

한정미(2007),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민속원.

브루노 베텔하임(1998,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1』, 시공주니어.

Abstract

A Study on the Fairy Tales in Japanese Colonial Rule as the Materials in Elementary Textbooks of the Unification Era

Jin, Sunhee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search for the meanings of fairy tal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s the materials of the children's literature that could be use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unification era. I extracted 14 typical types in 228 fairy tales that were contained in 4 books published in colonial rule.

The 14 typical types are as follows: the tales of brothers, the horns and magic club, the fairy and lumberjack, the daughter and bad stepmother, the story of sons, the quarrels for wisdom, the magpie that returns favors, the story of tiger, the story of the idiot, the story of court trial, the story of friendship, the story of the rabbit, the fall of the arrogant rich, the story of lies. I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ossibilities in 14 types as the materials of the textbooks that could be used in unification era.

■ Key words : Unification, Children's Literature, Fairy Tales, Textbooks, Japanese Colonial Rule

■ 논문접수일: 2019. 11. 13.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